

經濟人 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運(?)

김영수 (경제학박사)



그것은 큰 부자들 이야기이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할 때, '순 운이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가 한 번 반성해 보자. 戰爭을 칠려면, 圖上훈련이니, 실전 훈련이니 모두 다 하고도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운'이 좋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해보나 마나 반드시 지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도, 여기 저기 물어보고 비교하여 보고 궁리하고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안된다.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살피지 하면서, '재운'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말아야 한다. 필자 같으면, 어느 사업에 투자할 돈이 100 있으면, 사업구상과 투자밸리티 스터디에 20을 쓰겠다. 그리고, 나중에 宣傳에 20을 쓰겠다. 그리고, 정작 그 사업에는 60만을 쓰겠다. 필자가 앞에서 말한 현금박치기 작전 같은 것을 겸사겸사 구사해 가면서 말이다. 그것을 잘하면, 60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100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살 수 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100 모두를 특정 사업체에 던져 넣는 것보

성경 어데인가 써있던데... '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말이다.

두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某種의 방법을 써서 이 '運'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展開시킬려고 하는 노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어느 사업에서나, 약간 사이즈가 큰 일을 벌리고 나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다 가온다. 몇년간의 오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빼아픈 비용 지출,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던지는 주사위,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대한 圖上演習, 고민, 고민, 또 고민... 과연 잘 될까? 성공할까? 이 모든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또 無에서 새로 시작하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옆에서 같이 묵묵히 고생만 해온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하게 자고 있는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내일 그 서류에 내가 사인하느냐 마느냐로 결판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즉, '루비콘'강이 저기 보이는 것이다. 내일이면 나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가 아니면, 로마가 내것이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한산섬의 밝은 달이 휘영 청 뜨고, 어데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가 조선 청년이 순신의 애를 끊는 그런 밤이 있는 것이다. 내일이면, 내 사랑하는 조국 강토가 왜놈들에게 완전히 짖밟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폭풍의 前夜가 그렇고, 모든 큰 전투의 出陣前夜가 그렇다. 아주 조용한 것이다. 비장한 정도로 조용한 것이다. 약 2천년전 이스라엘의 감람산에서 '피가 되도록' 땀을 흘렸던 한 유태인 청년의 밤이 그려하였고, 육혈포를 닦으시다 말고, 壯士의 袞情을 一筆揮之하시던 義士님의 '하얼빈'의 밤이 그려하였을 것이다. 즉, 大事의 直前에는 잠을 못이루는 밤, 고뇌의 밤, 사나이의 밤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나와 나를 창조한 絶對者 단 둘만의 時間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운' 생각이 절로 나게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일요일날 잠깐 교회에서 만나는 것 외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주님' 생각도 절실히 나는 것이고, 나쁜 일만 생기면 탓을 하던 '조상님'들 생각도 절로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운'의 영역에서 일이 결판날 정도로 큰 일을 벌리시는 분들은 무언가 한 두어 가지 씩, 이 '운의 문제'를 나름대로 독특하게 취급하고 계신 것 같았다. 필자의 친구들 중, 월스트리트에서 큰돈을 크게 굴리는 서양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사업 크게 하는 중국 친구들 한국 친구들, 일본 친

구들은, 日辰같은 것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크게하시는 분들의 주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소위 '도사'님들이 계셔서 '날'과 '시'를 잡아주고 계신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크게 장사한다는 증권회사들은 아예 전속 점성술사가 있는 형편이고, 레이건 대통령도 전속 점성술사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고 지도자, 큰 장사꾼이 되고 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없이,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정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큰 결정을 해야하는 고독한 순간이 많은 것이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파병결정 前夜의 苦惱는 유명하다. 그 순간에, '길'인가 '不吉'인가를 물어볼 신통력있는 도사가 한 분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필자는 그 사람들이 점을 치고 궂을 하고 푸닥거리리를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원시적인 유치한 행위들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사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최고 지도자 옆에는 그 '상담' 역할을 하여주는 참모가 예전부터 있어온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제갈공명이 IQ가 500 정도 되는 천재 전략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 역사를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여 보면 제갈공명은 유비 옆에서 점을 쳐주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 <다음호에 계속>